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조선소년단 창립 66돐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 동무들!

조선소년단 창립 66돐 경축 전국련합단체대회에 참가한 소년단 대표동무들!

나는 오늘 백두산 기슭의 정일봉 중학교로부터 조국의 최전방인 초도의 종학교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먼길을 한 달 음에 달려온 우리의 장한 소년단 대표들과 모범소년단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기 참가한 소년단원들의 대견한 모습과 정다운 얼굴들을 보니 동무들을 평양으로 끌어온 바래위준 소년단원 동무들과 선생님들, 동무들의 부모형제들을 다 만나보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희망찬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 속에서 6. 6절을 맞는 대표동무들과 전국의 소년단원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과 온 나라 학부형들에 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6. 6절은 조선소년단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소중한 명절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소년단원들처럼 수백만 명 모두가 붉은 베트라이를 매고 하나의 조직에 굳게 뭉쳐 앞날의 주인공들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는 학생소년들은 없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품어주는 고마운 당과 조국을 끌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며 뛰어난 재능으로 나라의 영예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미더운 소년단원들은 지난 시기에도 항일 아동단의 혁명 전통을 이어받아 조선소년단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년근위대와 소년빨찌산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 나왔으며 자기 수령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지키고 불붙는 산림을 구원한 영웅적 소행들도 우리 소년단원들 속에서 처음으로 발휘되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소년호》 땅크와 《소년호》 비행기, 《소년호》 함선들을 인민군대에 보내주고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 살림살이에도 보람을 준 나아린 애국자들이며 기특한 꼬마 건설자들입니다.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련의 나날에도 우리 소년단원들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학교—우리 초소운동과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애국의 땀방울을 흘려왔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어제 날의 소년단원들이 오늘은 온 나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웅으로, 로력 혁신자로 되고 나라의 큰 일을 맡아보는 일군이 되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새 세대 소년단원 동무들을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처럼 훌륭한 조선소년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수백만 소년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조선소년단이 오늘처럼 혁명의 계승자들의 힘 있는 조직으로 세상에 자랑될 치게 된 것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자욱마다에는 혁명이 전진하는데 맞게 소년단구호도 새롭게 제정해주시고 소년단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며 소년단원들을 당과 사회주의 조국에 끌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들로 키워주신 대원수님들의 따사로운 손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원쑤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지만 학생소년들을 끌없이 사랑하신 자애로운 어버이, 다심한 학부형이시였습니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새 교복을 해입히는 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작으로 정해주시고 나라의 제일 좋은 곳에 멋있는 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을 지어주시고도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였습니다.

우리의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런 위대한 어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참으로 조선소년단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이며 이런 소년조직의 한

성원이 된 것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크나큰 사랑이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습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동무들이 주인이 될 앞날의 강성조선은 집집마다에 행복의 웃음을 넘쳐나고 모두가 화목하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를 다름 아닌 소년단원동무들이 떠받들고 더 훌륭하게 전설해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 배우며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 앞에 휘날리며 혁명의 피줄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청년동맹이 우리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아들여나가는 선군혁명의 척후대라면 소년단은 그 후비대입니다.

소년단원들은 항일아동단의 김기송,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찌산들처럼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되어야 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소년단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감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동무들의 성적종에 먼저 그려지게 됩니다.

우주로 캐트가 창공을 날고 CNC기계바다가 펼쳐

지고 있는 오늘에는 물론 최첨단에 오르게 될 래일의 우리나라에서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조국의 전진에 따라설 수 없습니다.

학생소년들은 강성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그마한 짬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놀래우는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도 바로 우리 소년단원들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학생소년들은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도리를 잘 지키고 언제나 조직과 집단, 동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과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체육도 잘하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모범소년단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년단 조직 생활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첫 정치 생활입니다.

소년단의 붉은 베트라이는 항일아동단의 붉은 베트라이를 물려받은 것이며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의 한 부분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당원의 영예

와 영웅의 금별메달도 붉은 베트라이와 소년단휘장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년단 조직 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 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분단 조직에서 준 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뒤에는 학생소년들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며 정치적 보호자인 소년단지도원 선생님들과 분단지도원 담임 선생님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소년단지도원, 분단지도원 선생님들을 크게 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선생님들이 항일의 아동단지도원들처럼 우리에게 귀중한 소년단원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재능을 꽂고 퍼뜨리며 창작에 이끌어주는 뿌리가 되고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아들여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울 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할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

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 속에서

6. 6절을 맞는 전국의 소년단원 동무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강대한 이 나라, 사회주의 조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에게도 다시 한번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

#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품 속에서 항일아동단의 빛나는 전통을 줄기 차게 이어온 조선소년단이 창립 66돐을 맞이하였다.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60여 성상은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수천수만의 아들딸들이 주체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난 사랑과 축복의 력사이며 어머니당을 따라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온 성스러운 넌대기이다.

절세위인들의 승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선군혁명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창립 66돐을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할 특대사변으로 경축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6일 평양

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김일성경기장은 김정일에 국주의가 강성국가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조선소년단창립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모여온 4만여명의 학생소년들로 차고 넘치였다.

대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대회장 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사상 만세!』, 『경축 6.6』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가 되자!』,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으며 기발개양대들에는 조선소년단기가 나붓기고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소년단원들이 꽃다발을 드리고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

꿈결에도 그리며 뵙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영광의 대회장에 높이 모시고 조선소년단창립절을 경축하게 된 크나큰 행복에 넘쳐 학생소년들이 부르고 또 부르는 만세의 환호소리가 대회장에 메아리치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떠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끝없는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학생소년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빛나는 초상기들을 모신 무개차와 조선소년단기종대가 대회장에 들어섰다.

개회가 선언되자 참가자들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에 맞추어 힘차게 합창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대회장은 우리 학생소년들을 조국의 미래, 혁명의 계승자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를 축하하여 조선소년단 축하단이 경축시를 랑송하였다.

이어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선창에 따라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준비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항일아동단의 빛나는 전통을 이

어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만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이를 결사옹위하는 소년결사대가 되겠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열심히 공부하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고상한 도덕품성과 튼튼한 체력을 갖춘 강성국가건설의 역군이 되겠다.

당의 선군혁명도를 충직하게 믿어온 앞날의 김정은장군님의 군대가 되며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여하여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주체형의 소년혁명가가 되겠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따라배워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선군조선의 애국동이가 되겠다.

우리는 소년단기앞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믿어주시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겠다.

『김정은선생님 발걸음따라 앞으로』 노래 주악과 합창에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빛나는 초상기들을 모신 무개차를 선두로 학생소년들의 사열행진이 있었다.

조선소년단기를 펼펼 휘날리며 보무당 당히 행진해나가는 대오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무궁번영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래일을 위하여 억세게 준비해가려는 소년단원들의 불라는 맹세가 뜨겁게 맹박쳤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선군동이, 행복동이들의 힘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한 참된 아들딸이 되려는 학생소년들의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대회장은 총정의 대하마냥 풀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학생소년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는 주체적소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믿어온 가려는 선군혁명위업계승자들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온 나라에 태양의 축복받은 행복동이들의 기쁨과 웃음이 끝없이 넘쳐나는 속에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가 6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음악회 장소는 한없이 따사로운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앞날의 주인공으로, 선군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뜻깊은 6.6절을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맞이한 소년단원들의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모범소년단원들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소년단원들이 꽃다발을 드리고 붉은 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승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김정일애국주의로 이 땅우에 미래사랑의 화원을 펼치시며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6.6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음악회는 한평생 《미래를 사랑하라!》는 혁명적 신념을 지니시고 후대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끓어번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절세위인들의 후대 사랑이 아름다운 송가가 되어 울려퍼지는 무대에는 혼성 6중창과 합창 《너희들은 조국의 미래여라》, 남성독창과 합창 《백두산을 향해 가는 길》, 《기다려다오》, 혼성3중창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합창 《수령님 한 품속에 우리는 사네》, 남성5중창과 방창 《사랑의 왕차》, 여성독창과 합창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혼성2중창과 방창 《조국이여 너를 떨치리》, 혼성4중창과 합창 《타오르라 우등 불아》 등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고결한 후대관으로 주체적 소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만복을 누리는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소년단원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하시며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으로 온 나라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고 더 활짝 꽂피우시기 위해 멀고 험한 전선길을 걷고 걸으신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로고가 눈물겹게 어려와 장내는 뜨거운 격정으로 젖

어들었다.

아버지장군님의 천만고생으로 이어진 그 길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애영소로 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렸고 콩우유를 실은 사랑의 왕차들이 거리를 달렸으며 배움의 창가마다에서는 글읽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비록 우리 대에는 락을 누리지 못해도 후대들에게는 더 좋고 훌륭한것을 물려주어야 한다시며 새 세대들을 위해 그 무엇

도 아끼지 않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관람자들은 종목이 바뀔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냈다.

음악회무대에는 너3중창과 아동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 너성독창과 아동중창 《어데까지 왔니》, 아동중창과 방창 《우리는 아동단원》, 아동합창 《소년빨찌산의 노래》, 남독창 《내가 나서 처음 배운 노래》, 너중창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너독창과 아동방창 《우리 학급동무들》, 너3중

창 《장군님 사랑》, 너중창과 합창 《우리 아버지》를 비롯하여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과 학생소년들이 함께 출연한 특색있는 종목들도 올라 6.6절경축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출연자들은 항일아동단의 전통을 이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만들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부강번영에 기여한 조선소년단의 영광스러운 행로와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며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행복님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음악회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희망찬 시기에 전국의 소년단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선소년단창립절을 세상에 없는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가슴들먹이였다.

조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혁신적으로 복무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며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계시여 소년단원들의 밝은 미래가 있고 끊없는 희망이 나래치고있음을 절감하게 하는 종목들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되새겨주며 종장 아동합창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시와 노래 《미래를 사랑하라》, 합창 《소년단행진곡》이 음악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백두산위인들의 후대 사랑의 력사가 빛나는 강성조선의 새 세대된 궁지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의 기발따라 지덕체의 나래를 더 활짝 펼치며 혁명의 퍼줄기를 꽂듯이 이어나갈 소년단원들의 신념의 맹세가 메아리친 음악회는 관람자들을 격동시켰다.

음악회가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우러러 또다시 열광의 환호가 러져오르며 장내는 격정으로 끊어지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본사기자





# 역적파당은 스스로 최후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지금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경축행사는 우리 민족사에는 물론 장구한 인류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어린이들의 대정치축전이다.

두께산총과 외진 섬마을을 포함하여 온 나라 각지에서 평양에 초청되어온 학생소년대표들은 무려 2만명에 달한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천 어버이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슴벅찬 이 현실을 두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감격에 젖어있고 기쁠 것으로 끊고 있다.

세계는 오직 사회주의 조선에만 있을 수 있는 대경사이며 부러움과 선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의 리명박여적파당은 아이들을 위한 이 경사스러운 경축행사에도 심술사납게 찬물을 기얹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

5월 29일부터는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의 《A채널》방송과 《KBS》, 《CBS》, 《MBC》, 《SBS》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일제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펴고 있으며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새로운 악행에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의 《A채널》방송과 《KBS》, 《CBS》, 《MBC》, 《SBS》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일제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펴고 있으며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새로운 악행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창전거리의 유치원어린이들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행운을 지니고 근로하는 인민의 평범한 아들딸들이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하는 등 세상만복을 다 누리는데 대하여 우리 최고수뇌부의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악다구니질을 해고 있다.

지어 온 나라 어버지, 어머니들이 감격하여 반기고 300만 학생소년들의 기쁨속에, 웃음속에 개막된 경사스러운 대정치축전을 《보여주기식행사》, 《인기풀이치종행사》, 《환심성행사》라고 깎아내리고 있으며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위대한 계승을 놓고 감히 『…』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히틀러도 흥내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티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우리 학생소년들을 사회주의 시책보다 자본주의 시장에 더 이속된 《장마당아이들》,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라고 헐뜯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새로운 악행이며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극악무도한 비방증상으로서 더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특대형범죄이다.

이 행성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나라에서처럼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태여나면 얘기공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무력무력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복된 삶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백두산위인들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속에서 꽂혀나고 있다.

가장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눈비에 젖을 세라 이 나라 모든 어린이들을 한 품에 안아 키워주신분이 어버이수령님이시였고 자신께서는 험로역경의 전선길로 떠나시면서도 아이들을 애영소로 손저어 보내주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으며 설날아침 혁명학원부터 찾으시여 원아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내세워주시는분이 다름아닌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다.

이런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 있어 준엄한 시련이 겪쳐들고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배움의 종소리는 더 크게 울렸으며 소년단아영기는 맑고 푸른 하늘가에 더 높이 휘날려왔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과 승리의 상징이다.

역적파당의 이번 악담은 우리 최고수뇌부의 창창한 미래와 새 세대들의 양양한 전도에 기절초풍한 나머지 지른 한갓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

예로부터 무지한 인간의 눈에는 세상만사가 꺼꾸로 보인다고 하였다.

바보, 천치, 석두로 락인된 역적파당의 눈에는 이 세상이 높게 보일리 만무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민족의 위대한 계승을 《흥내》라고 비하하고 민족의 전

도를 떠나고나갈 어린이들을 파쑈하틀러의 소년집 합체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히틀러로 말하면 무고한 인류를 재난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파쑈왕이며 나라와 민족을 파멸시킨 톨급범죄자이고 어린이들에게 대한 험담을 한 사랑의 감정도 없었던 메마를 대로 메마른 폭군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무자비한 총칼탄압과 반민적 악정을 풀어가며 일삼고 있는 천악종 리명박여적도를 악명높은 《리틀리》로 락인하고 역도의 상관에 히틀러의 교수염을 매달고 나치스제복을 입혀 화형식을 단행한지 오래다.

잘못 둘린 헌는 스스로 제 목을 동강내는 칼이 된다 하였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보듬하고 있는 리명박여적파당의 새로운 악행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군대의 륙해공군장병들은 치솟는 격분을 터치며 민족의 천운을 어지럽히는 자들, 인민이 따르고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을 모독하는 자들을 종대로 단호히 결산할 것을 한 사람같이 청원해 오고 있다.

전선의 군단, 사단, 련대들과 종심의 전략로 케트군장병들은 새로운 악행을 연출하고 있는 역적파당의 본거지인 조선일보사는 서울시 종구 북위 37° 56' 83" 동경 126° 97' 65" 위치에, 중앙일보사는 서울시 종구 북위 37° 33' 45" 동경 126° 58' 14" 위치에, 동아일보사는 서울시 종로구 북위 37° 57' 10" 동

경 126° 97' 81"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KBS》, 《CBS》, 《MBC》, 《SBS》방송국자리도 확정해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정벌을 가할 타격명령을 내려달라고 웨치고 있다.

협약하게 번져지고 있는 사례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역적파당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통첩을 보낸다.

우리 혁명무력은 최고사령관을 목숨으로 옹위하고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최고사령관이 그 유품 아끼고 사랑하는 인민과 아이들을 지키는 최고사령관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우리 사상과 제도, 인민을 해치고 있는 특대형도발자들의 소굴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철의 의지이다.

그래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례를 수습하는 걸로 나가겠는가.

스스로 최후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륙해공군장병들의 치솟는 분노는 더 이상 누를 수 없게 되여있다.

악행의 소굴이 하나, 둘 날아나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역적파당이 지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 군대의 분노의 폭발에 무모하게 도전한다면 우리는 이미 포고한대로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성전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준비되어 있다.

시간은 무한정 차례지는 것이 아니다.

주체 101(2012)년 6월 4일

평양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2돐기념 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강의시간: 1강의

송출날짜: 주체 101(2012)년 6월 14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보도문 발표

6.15민족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해외측위원회가 1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2월 상순 북South에서 진행된 북, 남, 해외 실무접촉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2돐을 맞으며 금강산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이것은 북남선언리행을 통해 현대결국면을 시급히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

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한 노력이었으며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남측당국은 여전히 6.15민족공동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심지어는 대결국면 해소와 6.15민족공동행사를 위해 북, 남, 해외 실무접촉에 참가하였던 남측위원회대표단에 갖은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공동의 통일정표로서 이것은 반드시 리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2돐 기념행사를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비록 올해 6.15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되지만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화해와 평화, 자주통일로 나아가려는 온겨레의 굳센 의지와 기상을 변함없이 펼쳐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책으로 인하여 북, 남,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당국의 부당한 접

# 동족대결 세력이 벌리는 현대판 《마녀사냥》

최근 남조선에서 현대판 《마녀사냥》이 미친듯이 벌어지고 있다. 리명박보수당은 통합진보당에서 4.11 《총선》을 계기로 일어난 문제를 내걸고 민주개혁세력과 동일인사들에게 《종북》의 모자를 씨우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에 살벌한 폭압분위기, 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역적폐당은 지금이야말로 《종북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떠들어대면서 반 《정부》 세력들에게 《종북좌파》 감투를 써 우다 못해 위험물질이 많은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한 사람들과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군인들에게까지 《반미 종북좌파》, 《종북군인》으로 몰아 법적으로 처형하겠다고 고아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자처하는 박근혜 까지 나서서 《국가판》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국회》의 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그들이 스스로 사회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악담질을 하였다.

어용보수언론들과 떨거지들이 여기에 합세해나서고 당국에 추종하는 검찰과 경찰, 정보원을 비롯한 행정권이 총동원된 가운데 《종북세력 척결》의 미명하에 도처에서 수색파수사놀음이 벌어지고 있다.

한마리의 개가 짖어대니 온 동네 개가 짖어댄다는 식으로 리명박당을 위시로 한 우익보수세력의

《종북세력 척결》 소동은 저들의 반역정책에 반기를 드는 각계층 인민들을 《종북》의 딱지를 붙여 탄압 말살하여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친미보수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발악적책동의 일환이다.

리명박역적폐당이 고아고 있는 《종북세력》이란 다크아닌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그들이 떠드는 《종북세력 척결》이란 통치 위기수습을 위해 통일진보세력을 말살하고 그 폐허우에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시기 군부파쇼세력들이 불운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약국의 감초처럼 써먹던 《색갈론》의 최절정이다.

그것은 외세의 충실한 사활군이 되어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대결과 분별을 무한정 지속시키려고 발악하는 현 남조선보수당국과 같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집단만이 고안하고 내뱉을 수 있는 황당한 수작이다.

알려진 것처럼 리명박일당은 온갖 반역정치로 남조선을 외세의 지배와 예속화에 더 한층 깊숙이 밀어넣고 파쑈독재의 람무장을 만들었으며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추구하면서 북침전쟁의 길로 내닫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은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리명박을 허리를 비유하면서 그의 반역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수천년 세월을 한강도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북과 남의 온 거래는 하나의 페줄을 이어받고 하나의 언어를 가진 한겨레이다.

이러한 거래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고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통일하자는 거래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일위업실현에 그만큼 유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적폐당이 남조선의 정치권과 각계층 인민들 속에서 저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북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하여 《위험한 발상》이니, 《종북》이니 하고 펼쳐 뛰며 야만적인 칼부림을 가지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반역행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북과 남사이에 공통된 견해를 가지거나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죄로 된다면 지난 1970년대에 남조선당국자들이 북이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동의하고 북남공동성명을 발표한 《유신》 독재자도, 1990년대 초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합의, 채택, 발효시킨 당국자들도 다 《종북세력》으로 범죄시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리적자인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조선의 정계와 재계, 사회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산과 개성을 비롯하여 북을 왕래하며 접촉과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였다. 여기에는 이전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박근혜도 있고 보수적인 언론인들과 정계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 북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디 어디를 다녀갔다는 것을 다 공개하면 아마 남조선은 《종북》 천지가 될 것이다.

결국 《종북》이란 것이 얼마나 허황한 타령인가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종북세력 척결》 소동은 남조선이 애말로 사상의 자유도 없고 주의주장의 자유도 없는 인권의 참혹한 생지옥이며 동족대결로 기생하는 파쑈사회라는 것을 응변으로 실증하고 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현대판 《마녀사냥》을 보며 사람들은 온통 대결일색인 썩은 풍토와 정치에 환멸과 저주를 보내고 있다. 사람이 말도 자유롭게 못하고 권력의 비위에 거슬리면 모든 것이 범죄로 취급되는 그런 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 타령이 울려 나오는 것도 해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온 민족은 남조선에서 통일에 국제권과 보수세력들을 거세 말살함으로써 《실용》 파쑈독재를 유지, 연장하고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리명박역적폐당과 《새누리당》의 죄악을 기어코 결산할 것이다.

오승철  
남조선에서 6월 인민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25년이 된다.

6월인민항쟁은 식민지 군사파쑈 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쌍이고 맷 헤 유통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살려는 그들의 불타는 열망과 강렬한 지향의 분출이었다.

1987년 6월 10일 군부독재세력들의 재집권을 노린 《4.13호헌 조치》 발표를 반대하여 서울과 부산, 광주와 대구, 인천과 대전 등 남조선 전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인민들은 일제히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호헌 철폐》, 《독재 탄도》, 《군사독재 지지하는 미군 물려가라》, 《직선제개헌》 등 의 구호를 든 연 500여 명의 각계층 군중의 참가밀에 근 20일 간이나 계속된 항쟁은 마침내 포악무도한 군부독재자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직선제개헌》 요구에 굽복해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6월인민항쟁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25년간 군부독재자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직선제개헌》 요구에 굽복해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이것은 진보개혁세력들을

조선인민들은 군사파쑈 독재의 유지, 연장을 꾀하는 미국과 남조선군사독재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외세가 없고 파쑈가 없는 통일된 새 세상에서 살려는 자기들의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표시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항쟁용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주, 민주, 통일의 영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는 계속되고 있으며 리명박역적폐당과 《새누리당》은 국우보수세력들의 기민국에 속아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또 다시 물러선다면 차례로 후파는 매우 엄중하다. 외세의 식민지 통치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6.15가 날아나고 이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의가 불의를, 민주가 파쑈를, 애국이 평화를 이기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최후의 승리는 자주와 민주화 그리고 통일된 새 세상을 앞당겨오기 위한 정의의 항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에게 있다.

남조선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6월의 광장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반미, 반독재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던 그날의 정신, 그 기백으로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새 정체, 새제도, 새 생활에 대한 자기들의 헌신을 기어이 실현하고자 말 것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 사건진상을 은폐시키려는 검찰을 비난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민주통합당 민간인 불법사찰조사소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권력에 아부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의 진상을 은폐시키려는 검찰을 비난하였다.

그는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를 장석명 등

청와대의 전, 현직 비서관 2명에 대해 알아보는 형식으로 대처하고 조사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밝힌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권재진을 즉각 해임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 《유신》 체제에 대한 립장을 밝힐 것을 요구

2일 남조선의 애당인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 의원 김재연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근혜를 비난하였다.

피뢰당국의 애당한 암에 항의하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하면서 그는 박근혜가 통합하여

본사기자

## 남조선대학생들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여 시위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 소속 대학생들이 3일 서울에 의도의 《새누리당》 사 앞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그들은 대학생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피뢰당국에 대한 분노를 터치며 통성투쟁을 벌렸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외곡보도에 대한 사죄를 요구

남조선의 《늦봄문의학교》에 대한 외곡보도에 대한 사죄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대회가 1일 동아일보 사 앞에서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동아일보》가 늦봄문의학교에 대한 외곡보도를 낸 데 대해 항의하였다.

그들은 열마전 《동아일보》가 학교가 어린 학생들에게 리념교육을 주어 시위

본사기자

장소에 동원시킨다. 학부모들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북과 공유한다. 하는 따위의 외곡된 내용을 보여진 악의적인 보도를 내보냈다고 비난하였다.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는 늦봄문의학교는 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친 문의학교에 대한 외곡보도를 낸 데 대해 항의하였다.

그들은 열마전 《동아일보》가 학교가 어린 학생들에게 리념교육을 주어 시위

본사기자

위는 남조선사회에 《권력만능》, 《황금만능》을 더욱 조장시켰으며 인민들에게는 공포와 불안,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정권심판론》, 리명박 《하야론》이 대대적으로 울려나온 것은 그때문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리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박근혜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조직들을 보면 그 정치의 앞날이 어떻겠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만약 박근혜가 집권하게 되는 경우 사조직을 권력탈취와 부정부패에 써먹은 리명박당의 쪽은 정치가 재현되게 될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것으로 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리명박의 사조직 《영포회》가 있었다.

리명박의 사조직이 권력을 휘두르며 저지른 부정부패

## 인간쓰레기들의 잡소리

지금 남조선에서 《종북세력 척결》 소동, 반공화국대결이 발악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수거리들이 벌리는 광란적인 대결모략 소동의 앞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 의원이 된 조명철과 같은 인간쓰레기들이 서있어 사람들을 더욱 경악케 하고 있다.

《종북세력》이니 뭐니 하며 국도의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이들로 말하면 한때 자기를 기워준 은혜도 모르고 일신의 안락을 위해 자기 조국과 가족, 친

척들을 버리고 도주한 자들이다. 한때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고마운 사회주의 시책이 좋다고 만세를 부르다가 배은망덕하게 공화국의 품과 가족을 버리고 달아난 이자들이 애말로 인간이기를 그만둔 속물 중의 속물들이다.

조명철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누린자이다. 그럼에도 이자는 자기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 준 공화국을 배반하고 남으로 도망하여서는 자기를 길러준 품을 향해 돌기어린 칼

질을 해대왔다. 북남경제협력사업이 《철저히 북의 제재를 변화시키고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협력하고 그 무슨 《인권》 타령을 늘어놓으며 보수파당의 동족대결 동에 지금껏 장단을 같이 이운것도 조명철이고 그 무슨 《북한민주화위원회》 등에 가담하여 반공화국모략 소동의 앞장에서 광분한 것도 조명철을 비롯한 인간쓰레기들이다.

초보적인 인간의 체모를 상실했던 이런 저질한 추물들의 일에서 온전한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지금 이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은 자기를 키워준 조국과 가족, 친척들 앞에 죄를 짓고 모자라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반공화국모략 소동의 앞장에서 서서 날침으로 죄악에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 있다.

죄에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원새끼를 꼬며 갖은 쟁다질을 다하고 있는 인간쓰레기들은 언제든 혁사와 민족의 준엄한 징벌을 면할수 없다.

최석현

전쟁반대!

평화통일!

미국나가라!

종북청결!

평화

주자

◇ 미친 개 ◇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연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리도 나온다.

《국민희망포럼》은 친박계의 종친이며 《국회》의 장인 강창희와 리성현이 주도하고 있고 《미래연구원》은 박근혜의 《대선행정》을 《심세하게》 수정보충하고 완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언론계 출신의 친박계인물들이 《국회》 부근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소영), 《강부자》, 《S라인》 등으로 내각을 사조직화하였으며 집권총에 《락하산인사》를 대대적으로 강행하여 온갖 부정부패로 사회를 부식시켰다.

리명박의 형 리상득의 《부산자금증여비리사건》, 최시중의 《대선불법자금사건》, 박희태가 시인한 돈봉투사건 등을 모두 리명박의 《6인회》가 저지른 큼직한

형으로 만드는데 적극 나섰으며 리명박의 집권과 함께 점차 청와대와 권력 출내부의 요직들에 들어 박히게 되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것으로 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리명박의 사조직 《영포회》가 있었다.

리명박의 사조직이 권력을 휘두르며 저지른 부정부패

본사기자 김정혁

별씨부덕 부패냄새가 날다

편집 위원회